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상유품(象喻品) ②

生而有利安 생이유리안
件炭和爲安 반탄화위안
命壽爲福安 명진위복안
衆惡不爲安 중악불범안

좋은 곳에 태어나는게 첫째의 안락
온화한 이의 짝하는게 둘째의 안락
목숨 다할때 복있는게 셋째의 안락
못 악도 범하지 않으니 넷째의 안락

人家有母樂 인가유모락
有父亦樂 유부사역락
世有沙門樂 세유사문락
天下有道樂 천하유도락

사람의 집에 어머니 계서 즐겁고
아버지 계서 또한 즐겁다
세상엔 사문이 있어 즐겁고
천하엔 도가 있어 즐겁다

持戒終老安 지계종노안
信正所正善 신정소정선

從是住定 종시왕정
如馬馱御 여마조어
斷患無漏 단애무루
是受天樂 시수천락

이로부터 선정으로 나아감은
말을 잘 길들이는 것 같이
성법을 끊고 번뇌 없애니
이는 하늘의 즐거움 받는 것이다

不自放恣 불자방자
從是多病 종시다오
羅馬比良 이마비량
麋鹿爲賢 기약위현

스스로 방자하게 놀지않고
이로부터 항상 깨어있으면
과리한 말이 좋은 말 되듯이
악을 버려 어진 이가 된다

애욕품(愛欲品) ①

心放在遊行 심방재유행
欲愛增枝條 욕애증지조
分布生熾盛 분포생치성

마음을 행에 놓아놓으면
애욕은 더욱 가지를 뻗어서
사방으로 퍼져 무성해진다
과일을 탐해 날뛰는 원숭이 같이

초악貪果猴 초악탐과후

마음을 음행에 풀어놓으면
애욕은 더욱 가지를 뻗어서
사방으로 퍼져 무성해진다
과일을 탐해 날뛰는 원숭이 같이

以爲愛苦惱 위유애고노

貪欲著世間 탐욕착세간
憂患日夜長 우환일야장
如夢草生 연여만초생

애욕을 탐기만 고통다 하여
탐욕 부리며 세간에 집착하면
우환은 밤낮으로 자라난다
마치 남풀이 썩어가는 것 같이

人爲惡愛惑 인위은애혹

不能離情欲 불능리정욕
如是愛愛多 여시우애다
漸漸盈于池 잔잔영우지

사람들은 은애에 미혹하여
정욕을 버리지 못하니
그럴수록 근심과 애욕은 많아진다
물이 흘러 못을 가득 채우는 것 같이

龍眼

“성냄 끊고 번뇌 없애 선정에 들면
이는 하늘의 즐거움 받는 것이다”

智慧最安身 지혜최안신
不引惡最安 불범악최안

계율 지키면 늙도록 편안하고
바르게 믿으면 바른대로 좋고
지혜 있음은 내용 가장 전해 좋고
악이 범하지 않으니 가장 편안하다

如馬馱御 여마조난
隨意所如 수의소여
信戒進進 신계정진
定法要具 정법요구

말을 잘 길들여 놓으면
뜻에 따라 어디고 가는 것처럼
믿음과 계율과 정진
선정의 법을 반드시 갖추어라

修行成立 병행성립
忍和意定 인화의정
是斷諸苦 시간제고
隨意所如 수의소여

지혜와 행이 잘 이뤄지고
인욕과 화합의 뜻 오롯하면
이것이 온갖 괴로움 끊는것
가슴대로 어디고 여여하리라

파계사 성전암 주석 철웅스님 경제난 극복 법회

철웅스님

“잘 살려면 마음 비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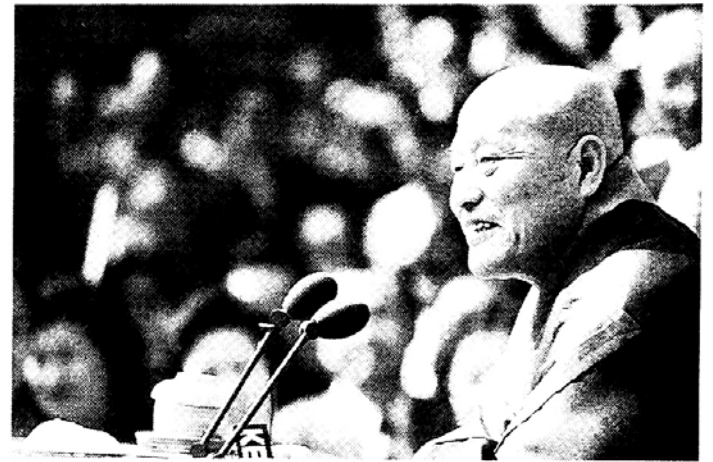
1만3천여 불자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철웅스님 법문을 듣고 있다.

20년만에 산문나와 대중설법
1만3천여 불자 참석 ‘야단법석’

20년을 파계사 성전암에서 인거해온 철웅스님이 산문을 나와 첫 대중법문을 했다. 스님은 6·25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 하는 IMF경제난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설법하고자 동체대비 원력을 낸 것이다. 스님의 법회가 있던 3월31일 팔공산 파계사는 1만3천여명의 불자들로 ‘야단법석’을 이뤘다. 법회장인 요마당은 신도들로 메워졌고, 법당, 요동산 등 스님의 법문이

들리는 곳이면 사람들이 무리져 모여앉아 스님의 법문에 감동으로 합장하고 박수를 보냈다.

특유의 설법으로 대중을 일깨워온 철웅스님은 89년 서옹스님(前 조계종 종정·고불종림 방장)으로부터 ‘부촉정법’을 받았다. ‘달이 영단에 비치니(月照映潭) 바람이 옛 전나무에서 일어난다(風生古樹). 새아가 하늘을 찌르니(鸞鳴冲天) 누가 능히 너를 감당하리오(惟能那爾).’



경제난도 마음의 병에서 왔다는 스님은 “잘 살고 싶거든 많이 배풀라”고 강조한다.



철웅스님이 20년째 인거해온 팔공산 파계사 성전암 전경. 성전암은 성철스님이 60년대 8년동안 철조상을 치고 징죄물외한 곳으로도 유명한 참선 수행도량이다.

달빛은 구름에 화해서 희고
슬비랄 소리는 이슬을 머금고 향기를 뿜는다.
초동들의 노랫소리 무한한 것은
누가 능히 알리오.

인류역사 이래 금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찾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문 사상 등 각 방면에서 많이 들 뚫어놓을 수 있지만 인생의 어려운 문제는 풀린 적이 없습니다. 왜 인니까.

문제가 어디있는가 하면 바로 마음안에 갇혀 있어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이 이을배반으로 공존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마음도 이을배반으로 선과 악의 의식이 있습니다. 이 의식으로 여러분이 찾는 모든 행복 번영 건강 등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생애 보람과 젊음의 환희를 느끼며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도 50개계를 넘기면 늙음으로 죽어갑니다. 지구촌의 영웅 호걸들도 모두 죽음을 맞이했고 실패했습니다. 원인은 행복을 밖으로 밖으로 찾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꿈을 좇아 헤매며 어리석음을 짓는 겁니다. 따라서 과거나 현재나 행복은 마음 자체가 만드는 것입니다. 내 마음

이 부처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올 때 여러분의 마음은 영원하고 무한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관성 환경 직업 등 모든 현상계는 각자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망상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마음이 모순인데 어떻게 벗어날겠습니까. 사람은 건강해야 하고 돈이 있기를 바랍니다.

국기도 풍족해야지, 남을 봐주지는 못해도 얻어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또 편안하기를 바라며 명에도 있어야 하고 놀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만 뜨면 갖가지 방법을 추구하려고 몸부림칩니다. 바닷물은 퍼도퍼도 끝이 없는 것과 같이 끝없는 복을 바라라는 이말입니다.

이같은 중생들의 바람이 하도 안타깝고 답답해서 석가모니부처님 공자 예수가 출현한 것입니다. 싯달타재자는 인도의 선각자에게 그 해답을 얻지 못할 것을 절감하고 스스로의 고행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고행의 장소를 찾아 설산을 해매게 됩니다. 6년 고행 끝에 득도하고 마침내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있는 사람은 잘 살고, 어리석

은 사람은 못 사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끌고온 이 몸종이라는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시간시간으로 바뀝니다. 변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몸은 마음에서 생긴 지수화풍의 4대로 이뤄진 그림자일 뿐입니다. 몸으로 아는 일체의 것이 모두 헛된 것이라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음이 밝으면 그 자체로 부처님의 마음이 됩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일깨워주시고자 스스로 고행을 통해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결국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부처라고 알고 중생이 모두 부처의 성품을 갖고 있음을 알아 '본래 무병이 없음'을 깨닫는 것이 과제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흰 고무신과 검은 고무신이 때가 묻었습니다. 검은 신은 닦을수록 더 검어지지만 흰 신은 닦으면 닦을수록 희어집니다. 본래 희기 때문

- 1934년 10월 20일 경남 생
58년 석우스님을 은사로 출가
이후 72년까지 화엄사 법어사
해인사 동화사 등 제방 선원에서 수행
72년부터 77년 성전암 주석
89년 서옹스님으로부터 '부촉정법' 받음
저서 <종교와 생활> <선과 생활> <반야심경과 성서> <생활불교> <무한성의 구현> <장엄한 생명의 노래> <주장자> 등 다수

니다. 여러분도 본래 부처이기에 세세생생 닦으면 '이르'하고 본성을 깨닫습니다. 바로 이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생들은 매일 참아음을 쓰면 서도 모릅니다. 그저 옳다 그르다 옳다

'98 어린이날 기념

제4회 전국 어린이 부처님 그림 그리기 대회

부처님 오신날 기념

부처님이 좋아요



“어린이 가슴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부처님을 그립니다.”

명대공! 5월 5일 어린이 날.

이 날은 우리들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을 이 나라의 주인공으로
더접하는 날입니다. 지난 해 많은 분들의 후원에 힘입어 어린이날
기념행사로 치루어졌던 전국 어린이 부처님 그림 그리기 대회.
월간 불광과 목아불교박물관에서는 이 날을 어린이들 가슴 가슴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부처님을 모셔주는 날로 정했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 네 번째로 마련되는 부처님 그림 그리기대회에
어린이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전국 어린이 부처님 그림 그리기 대회와 함께
펼쳐지는 다양한 행사

옛날 옛날에 어린이 날이 있었다면 우리 어린이들은 어떻게 놀았을까?
· 참가자와 함께 하는 견학놀이 '우리 놀이 마당'

무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 신재이벤트까지 진행하는 재미있는 레크리에이션, 참가자랑
어른들을 위한 전시마당

·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인간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
목아 박찬수 선생님의 '불교 동자조각전'
· 전국 어린이 부처님 그림 그리기 대회 입상작품 전시회

- 일 시: 1998년 5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
장 소: 성북동 길상사 (☎ 3672-5945~6)
대 상: 전국의 어린이(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시 상: 종합 대상 1명, 대상 1명, 금상 2명, 은상 3명,
동상 5명, 입선 200명, 특별상(단체상),
각 부문 상장 및 상품(시상내역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가비: 5,000원 (15명 이상 단체 참가시 1인당 3,000원)
준비물: 도시락, 크레파스나 그림물감, 화판 (모자착용, 돗자리)
참가자지원 기념 티셔츠, 통화책, 음료수 등 기념품 증정(선착순 1,000명)

\* 행사 당일 비가 올 경우에는 길상사 실내에서 대회가 열립니다.
주최장이 협조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당일 지하철 4호선 삼선교역 6번출구에서 길상사까지 셔틀버스운행)

참가 신청 및 문의전화: 월간 '불광' 02) 420-3200
목아박물관 0337) 85-9952~4
신재이벤트 02) 720-1506